

“서른 잔치로 새로운 도약 꿈꾼다”

30돌 맞은 금성출판사... 제2의 창립 계기 삼아

(주)금성출판사(대표 김인호)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지난 65년 10월19일 첫발을 내디딘 이후 발전을 거듭해온 금성출판사는 이제 9개의 계열사와 문화재단을 거느린, 사원수만 해도 5천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출판그룹으로 성장했다. 특히 금성이 국민독서문화 진흥과 출판문화 창달을 취지로 하여 지난 93년 설립, <MBC 창작동화대상> <독서대상선발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펴왔던 ‘운평문화재단’이 문화체육부가 올해 처음으로 제정, 시상한 ‘독서문화대상’의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창립 3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금성이 이룩한 성공신화

금성이 이룩한 이러한 성장신화의 배경에는 창업주인 김낙준 회장의 탁월한 경영능력과 출판인으로서의 신념이 자리한다.

청년기에 대구 문화서점 직원으로 책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김회장은 “모든 일의 우선은 사람이다”는 인간중심의 경영관과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처하는 탁월한 능력, 문화산업으로서 출판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바탕으로 창립 이후 오늘까지 금성을 이끌어왔다.

김회장의 이러한 신념과 능력은 우리 출판계 전체를 발전시키는 데도 기여한 바 크다. 김회장은 92년 이후 4년간 출판협회 회장을 맡아 93년 ‘책의 해’ 사업이라든가 '95

서울국제도서전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우리 출판계의 위상을 높이고 내실을 기하는 데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성출판사는 <어린이 길잡이> <어린이 첫걸음> 등 아동도서로 출발했다. 그후 출판영역을 전집류로 확장, 탁월한 기획력과 뛰어난 편집, 탄탄한 영업망을 바탕으로 전집류 출판이 상업적 성공을 거두면서 대형출판사의 입지를 다져나갔다. 특히 금성의 영업망은 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데, 1969년 2월 직할영업부로 출발하여 창업 10년만에 전국 영업조직 4개 본부, 21개 영업소로 확대하였고, 1985년 창업 20년에는 서울 19개 영업소, 지방 4개 본부 70개 영업소로 그 규모를 확장했다. 현재는 전국에 3개 영업총국과 15개 영업구, 162개에 이르는 지점을 갖추고 있다.

한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과감한 투자도 출판기술의 고도화를 이룩, 금성의 성공을 다지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지난 83년 국내 출판계로서는 유일하게 첨단기인 전산사식 시스템을 도입, 세계 우수 대형출판사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출판체제를 구축한 점은 그 대표적인 예다.

금성출판사의 또하나 중요한 축은 교과서와 사전류다. 1978년 인문계 고등학교 2종 교과서 7과목 총 9종의 책이 문교부 심사에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는

(주)금성출판사는

9개 계열사와 문화재단을

갖춘 출판그룹으로

성장했다.

창업주인 김낙준 회장의

탁월한 경영능력과 신념을

바탕으로 성공신화를 이룩한

금성출판사는 이제

제2의 창업을 꿈꾸고

있다.

창업주 김낙준 회장.



합격, 단일 회사로는 전국 최고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 이에 힘입어 1981년에는 금성교과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출판그룹으로서의 첫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지난 91년 출간한 <금성국어대사전>은 무려 4천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기획과 편집능력의 탁월함을 인정받아 제15회 출판학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응

한편, 금성출판사는 80년대 중반부터 해외 영업소와 거래처를 개설하는 등 해외 진출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90년에는 주식회사 ‘캠프’를 설립, 전자출판과 뉴미디어

상품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91년에는 현재의 김인호 사장을 영입, 보다 전문적인 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등 정보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제 금성은 다가오는 21세기의 변화된 출판환경과 출판전문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에서 있다”는 김대식 홍보국장의 말처럼, 건실한 뿌리를 지닌 나이 서른의 금성출판사는 이제 제2의 창립을 꿈꾸고 있다.

— 박남정 기자

제9회 ‘책의 날’ 기념행사 성대히 치러

‘출판공로상’ 및 ‘독서진흥상’ 시상도



지난 11일 있었던 ‘책의 날’ 기념행사 모습.

책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11일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김낙준)가 책의 소중함과 책읽는 즐거움을 널리 일깨우고자 지난 88년 제정,

올해로 아홉번째를 맞는 이날 행사에서는 기념식과 아울러 출판문화향상 및 독서문화 진흥에 공로가 큰 인사에게 주는 ‘한국출판공로상’과 관련업계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이밖에 제 2회 ‘독서진흥상’ 수상 및 정부서훈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출판단지 ‘명명식’ 행사 개최

출판단지조합(이사장 이기웅)은 이달 20일 오전 11시 과주군 교하면 문발리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부지에서 ‘명명식’(命名式)을 가졌다. 단지 조성의 첫걸음이자 단지의 공식명칭을 널리 알리는 이번 명명식 행사는 잠신과 악귀를 물리치고 토지신에게 사업을 고하는 고유제(告由祭)를 시작으

로, 명명안내 및 명판 개봉, 개발계획 및 설계 설명의 공식행사를 치르는데 이어 행사가 끝남을 고하는 天鼓울림과 지신밟기의 뒷풀이가 있었다.

민족문화추진회 30돌 기념 학술회의

민족문화추진회(이사장 고병익)는 오는 11월3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창립 30주년을 맞아 ‘한국고전적정리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갖는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한국고전적의 현대화의 성과와 과제>(신승운) <한국고전적의 세계화 방향>(김종길) <한국문집총간사업의 평가와 의의>(한영우) 등의 논문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